

우리나라 현경제난국 극복 방안에 대한 제언

이 승 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명예교수

1. 우리나라 경제발전과 경제난국 도래의 배경

우리나라는 2차대전 종료후 해방이 되어 환희와 미래에 대한 기대에 부풀어 있을 때, 6.25사변이라는 참변을 겪게 되어 수많은 인명의 희생과 더불어 전 국토가 초토화되어 버렸다. 이로 인해 우리는 필설로서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참담한 상태에 빠져 버리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의 지도자들은 기아와 동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기에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우선 의·식·주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 이를 해결토록 비료, 의류 및 시멘트 생산 공장건설에 착수했다. 그리고 이들 공장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발전시설의 확충을 이룩했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연료의 확보책으로 정유공장을 건설했다. 그후에 필요한 것이 이들 공장에서 생산한 물자를 운반, 배분하기 위해 자동차, 선박을 생산할 공장의 건설재, 파괴된 교량의 보수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대형건물의 신축, 기타 자동차, 선박 등을 제조하는 철강재의 제조를 위해 필요한 제철소를 건설함으로써 민생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을 회고해보건데 그 필요성을 정확하게

파악했음은 물론 앞뒤 순서의 뒤바뀜 없이 적기에 이룩해 낸 것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를 이룩하는 과정 즉, 공장의 건설과 그의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에 국민을 적극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써 그 과정에 필요했던 모든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해결해야 할 문제 즉, 공장 건설에 필요했던 차관의 상환과 자원이라고는 흙과 물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 모든 것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수입을 위해 막대한 외화를 획득해야 했다.

즉,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제품을 수출해서 외화를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근검절약 자본을 축적, 모든 공장의 규모를 국내 수요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제의 규모 또는 그 이상으로 키워 첫째도 수출, 둘째도 수출을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통화 가치의 평가절하에 따른 물가 상승의 고초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성공했을 뿐 아니라, 국민자본의 형성까지도 이룩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이 자본은 빠른 속도로 회전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 우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자본과 기술 보유국이 됨으로써선진 제국들이 1세기 이상에 걸쳐 이룩한 업적을 불과 35년만에 이룩하고 국민소득 1만불,

무역액 2천억불 시대를 이룩한 것이다. 이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눈부신 발전상으로서 현대도 세계 경제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게 웬말인가? 국민소득 1만불을 구가하던 것이 엇그제 같았는데, 작년 초부터 우리 경제의 전망이 어두워질 것 같다는 예측이 나오기 시작했다. 잘해야 연착륙이라도 이룰 수 있을 것 같더라는 것이다. 그것이 오늘날에 와서는 경제 주체들을 위시하여 모든 국민들이 경제 난국으로 인식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전기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발휘한 지혜와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큰 탈없이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은 갖고는 있으나, 지금의 경제 주체들의 견해와 그 해결책을 엿보전대, 불안을 느끼게 한다.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구조 조정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데, 이것이 전기한 우리가 이룩한 산업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게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 위기 극복은 어디까지나 이 기반기술의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2. 경제위기 도래의 원인과 그 치유대책

본인은 경제에 관해서는 문외한이고 과거 눈부신 산업 발전기에 기술인 또는 기업인으로 참여한 바도 없다. 다만 한 공학도로서 그 발전과정을 외곽에서 지켜 볼 수 있었던 관계로 객관성을 띤 관찰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관찰한 결과로는 우리 경제를 현 위치에서 탈출케 하려면 비교적 정확하게 그 원인과 치유법을 알아내야 한다.

우리 나라 대다수 국민이 현 경제위기의 원인을 우리나라 산업의 고비용 저효율에 기인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실제로 과거 7년간 임금은 생산성을 상회하는 연평균 15%씩 상승하였고 17%에 이르는 물류비용, 높은 자본 비용, 고지가(高地價) 등을 그 원인

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위기가 닥쳐올 것 같다고 느끼기 시작한 작년 초까지도 우리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 왔음을 볼 때, 이것이 국제 수지가 큰 폭의 적자로 돌변한 근본 원인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현재 경제 주체들이 위기 해소책을 산업구조의 조정, 시장경제화의 추진, 규제완화, 벤처기업의 육성 등에 두고 있는 듯한데, 이것이 경쟁력강화에 유효한 대책임에는 틀림없으나 이는 현재와 같은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한 특별대책이 아니라 위기도래 전 위기해소 후에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인 것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최근에 와서 반도체 산업, 정보통신산업 등도 육성되고 있었으나, 전기한 바 있듯이 우리가 전후 35년간에 이룩한 것은 중화학공업이고 우리나라가 축적한 자본도 거의 이 분야에 투자되어 왔던 것이다. 즉, 우리 나라에 건설되어 있는 중화학공업이 우리나라 생산시설의 대부분인 것이다.

그리고 이 중화학 공업은 G7 국가에서는 많이 쇠퇴되고 있으나, 유독 일본만은 우리의 경쟁국으로 남아있으며 미국과 같은 고도산업 구조로 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자본과 기술축적면에서 볼 때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적어도 앞으로 10년간은 우리의 적수가 못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불리 산업 구조를 조정하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우리의 수출 전성시대였던 6,7년전부터 국제 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현재까지의 우리나라 국제수지 상태를 돌아보자.

우리의 흑자 증진 전환시점은 일본의 엔화 가치가 미화 1불당 80엔, 즉 엔고시작 시점이었고 우리의 국제수지 흑자가 감축하기 시작한 것은 엔화의 평가절하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엔화의 평가절하가 워낙 급히 이루어져 우리가 이에 손쓸새도 없이 현재 미화 1불당 125엔에 이르고 있어 우리는 급격한 경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우리의 수출물가는 50%나 상승하게 되어 수출이 격감하게 된 것이다.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현 경제위기 탈출 방법은 원화를 최소한 엔화와 같은 율로 평가 절하시켜 국제경쟁력 제고의 시발점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의 실현을 주저하다가는 보유외화마저도 소진되고 우리 경제는 추락하고 말 것이다. 본인은 전기했듯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절하 방법은 모르나, 일본은 G7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대미엔화가치를 단시일 내에 50% 이상 평가절하할 수 있었고, 또 급격한 절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외국의 어느 나라로부터도 아무런 지탄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그뿐 아니라 그러고도 물가는 안정되고 있다. 우리도 이를 뒤따를 수 없을까?

3. 원화 평가절하에 따라 나타날 부작용도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으로 치유해야 한다

원화평가절하에 따르는 부작용의 첫째는 기차입외채로 인한 환차손문제인데, 이것 역시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외환 보유고의 증가가 있어야 갚을 수 있으니(외환차입도 가능하겠지만 이는 언젠가는 갚아야 할 돈이다) 흑자 전환을 위한 원화가치 절하를 막을 수는 없다. 환차손이 원화가치 절하로 물가를 상승시켜 국민 전체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도 예상되나, 우리는 근검절약의 실천에 의해 원화절하만큼 생활 수준을 절하시켜야 된다. 그래야만 이 경제위기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우리와 경쟁 상대국인 일본이 G7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도록 평가절하를 하여 우리를 생사 기로에 몰아 놓고 있으니 우리의 원화가치를 엔화에 연동시킨다든가, 기타 경제 논리에 맞도록 환율에 관한 시행법을 수정하든가, 하는 것에 대한 비판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안되면 외교경로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4. 국제수지 적자의 다른 요인인 수입과다 문제의 해결책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는 데는 수출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수입의 감축도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수입증가 추세는 평상시(엔화 가치 안정 시기)에도 수출의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경상 수지 적자가 우려되고 있었는데 이의 원인은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상승이 첫째 원인이었고, 다음에는 금융산업의 시장 경제적 본질을 이탈케 한데 있다고 본다. 이를 살펴보면 인간은 돈도 좋아하지만 신변의 안전에 대해서 더 큰 배려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금융기관을 사정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예금자의 접근을 막아 은행의 저축 유인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과세로 인한 손해를 인식하게 될 경우 접근이 어렵게 된다.

금융기관은 국민이 근검 절약해서 형성한 자본을 될 수 있는 대로 예금으로 유치, 이를 산업자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그 목적달성을 위한 움직임을 저해시켜서는 안된다. 그런데 일정금리 소득 이상에 대한 중과세, 부정 수입에 대한 사정의 장으로 이용한다든지 하는 것은 상기 금융기관의 업무수행 업적을 저하시키게 되어 국가자본의 활용을 감축시키게 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국가 규제는 예금자의 권익 보호 차원을 넘지 않게 하되, 이에 반해 금융사고 발생에 관련되는 규제는 가능한 한 엄격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시장경제 차원에서 국민이 스스로 예금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는 예금 이자율에 따라 성과가 좌우될 것인데 이는 금융기관의 몫이다. 금리 소득에 대한 과세는 정부의 몫이다. 이 경우 과세 제도 여하에 따라 자기 재산의 노출을 기피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 이런 경우가 없어야 국민이 절약하여 모은 모든 자본이 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세계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특히 이 시점에서는 예

금이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안하는 것이 국가 자본 총 동원에 큰 도움이 되고 과다 수입에 의한 과소비 억제에 기여하게 되어 국제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금자에 대한 우대정책은 자본생활자를 천시하는 경향을 불식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인간의 노동력에 의한 부가가치는 자본에 의한 부가가치에 비할 때 1/100, 1/1000, 때로는 1/10000밖에 안될 수도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한 자본 제공자를 존경하고 우대하는 풍조를 조성해서 국민에게 이를 널리 인식시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의 자본의 중요성을 인식, 자본 제공자의 우대는 국민의 근검절약정신을 증진시켜 국가 자본형성에 더욱 유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저축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할 경우 국가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데 그의 일부를 소비세로 징수하고 일부는 은행의 영업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에 의해 보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소비에 대한 과세는 소비를 감축시켜 국제수지 적자감축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금융소득에 대해 비과세액의 일부를 여신금리 감액에 충당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5. 기타 경제 발전을 위해 개혁해야 할 문제

이 국제수지 적자에 기인된 경제난국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바 있는데, 여기서 우리 경제를 약화시키는 다른 두 가지 현상에 대해서 언급해 보기로 하겠다.

① 사교육비의 산업자금화

교육이 기대하는 효과는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첫단계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질서와 법을 준수할 줄 알게 함은 물론 약자에게 군림하지 않고 베풀 줄 알며 사회에 봉사할 줄 아는 인성 교육과 잘 가꾸어진 정서, 강인한 체력, 건전한 정신력을 지니도록 훈련하는

것이고, 그 두번째 단계는 성인이 되어 부모와 사회의 보살핌을 벗어나 독립 인생 항로로 출범하게 될 때 첫 단계 교육에서 터득한 인성을 바탕으로 세파를 헤쳐 가면서 원하는 사회적 지위를 구축하고 경제적 대우를 확보해서 보람된 생을 영위하기 위한 능력의 배양이다.

전자는 우리나라에서는 초, 중, 고교에서 이룩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인성 교육은 경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부문 교육은 나라마다 사회 환경과 재정 형편에 따라 그 교육 기간이 상이하기는 하나 많은 나라가 의무교육 제도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초, 중, 고의 과정에서 학습의 면려를 위한 자극을 주기 위해 평가는 필요하지만 진학을 위한 평가는 불필요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대학교에 우열의 차가 있으면 이의 선택을 위한 경쟁이 필요하게 되며, 인성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가고 수험준비를 위한 과외 수업이 왕성하게 된다. 이는 고른 교육을 할 수 없어 사람 만들기에 지장을 초래케 한다. 따라서 이 폐단을 없애려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 교육기관을 평준화해야 한다.

이 경우 평준화에 의해 경쟁이 없어지면 발전이 없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기는 하나 사람 만들기 교육에서는 경쟁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기한 바 있듯이 필요도 없는 경쟁제도의 도입은 인성교육을 근본적으로 해치게 된다. 교육이 잘못되어 인성이 잘 가꾸어지지 않는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는 아무리 경쟁력이 있는 경제적으로 윤택한 사회라 할지라도 구성원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대학의 교수진은 평준화가 많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평준화는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내외 유명교수의 강의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국가나 대학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청강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으므로 평준화는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한경쟁속에서 살아 나아가려면 인재의 양성, 즉, 사람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식과 기술에 의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고로 인재양성에의 투자는 조금도 아까울 것이 없을 것이

다. 현재 우리 나라의 대학입시준비를 위한 사교육비가 17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만일에 대학을 평준화하여 입시제도를 폐지하고 입시를 위한 사교육비가 필요없게 될 때, 사교육비의 10%를 10년만 대학평준화를 위해 투자하면 국내 모든 대학이 선진국 수준의 대학이 될 것이다. 이 제도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수의 자질도 자질이지만 교수가 아무 주저없이 학생의 학습도를 소신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환경과 제도를 쇄신해야 한다. 그래서 학습 평가 단계마다 자격미달자는 소신껏 탈락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음에 이에 수반되는 것으로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데 이에 현재의 전문대를 그 전문성의 난이도에 의해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탈락자들을 각자의 수준에 맞는 실무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렇게 될 때, 매년 절약되는 사교육비 15조원을 산업자금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일조하게 되어 국제수지 적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② 정치자금의 산업 자금화

현재의 우리나라의 정치활동은 많은 자금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어 정경 유착이 발생하고 정치 스캔들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가로 하여금 정치는 제쳐놓고, 자금 조달에 동분서주하게 하고 있는 형편이다. 만일에 돈안드는 정치제도를 구현시킨다면 그 자금이 경제발전에 활용될 수 있어 좋을 뿐 아니라 정치 자금 관련 스캔들이 없어져 사회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 시대를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고 있다. 이는 금세기 후반에 출현한 신소재인 반도체에 의해 이룩된 것으로서 현재 인류 문명을 크게 바꾸어 놓은 Computer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과학자들은 이 Computer를 통신기술과 적합시켜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을 정립시키고 이에 Digital기술을 접목시킴으로써 모든 정보 즉 음성, 문자, 정지화상, 동화상, 음향 등을 그 양을 압축하여 단시간에 대량의 정보를 전달시킬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디어간의 차이점을 해소, 통일된 하나의 정보망을 통해 지구 차원의 교신이 가능한 시대

에 이르렀다.

선거 운동이라는 것이 입후보자의 모든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장소와 거리에 관계없이 전달함과 또 선거권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들과의 토론을 통해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음을 생각할 때 이 새로운 미디어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 백사장이나 운동장에 모아 놓고 연설하는 것같은 구태의연한 방식에 의존할 필요는 없다.

특히 이렇게 하면 유권자와 직접 접촉할 필요도 없어 금품의 전달 등에 의한 부정 현상도 발생하지 않아, 깨끗한 선거가 될 것이고 선거 비용을 수백 분의 일로 감축시킬 수 있어 이것도 산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추 기

이상 경제위기해소책에 대해서 언급해 보았는데, 요는 지금 우리 경제는 인체에 비해 볼 것 같으면 암과 같은 중병에 걸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의 치유에는 수술 요법과 같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즉각 시술, 치유시켜야 한다. 시장경제화의 촉진, 규제의 완화, 구조조정, 벤처비즈니스의 육성 등과 같은 기본 체질의 개선 또는 증진 치료법으로는 치유 시기를 잃고 만다. 그리고 우리 나라 의술로 치유시키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의 우방이면서 선진국인 미·일에게 그 치료법을 전수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거절할 경우는 전세계의 의술자에게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입각해 빈사상태에 있는 우리 경제를 되살아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백방의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꼭 치유시켜야 한다. 이 병은 우리 체내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일본과 미국이 자기네 화폐의 평가를 자의로 내렸다, 올렸다 함에 의해 발생한 현상이다.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던 우방을 어느 순간에 이 지경에 이루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경제 주체 여러분!

정확한 치유법을 발견, 빈사상태에 있는 우리경제를 빨리 회생시켜 주십시오. ■